

“염소 농가 어려움 해소 지원”..농촌진흥청 우수 농가 현장 소통

- 조용민 국립축산과학원장, 30일 전북 남원시 현장 간담회
- 축사 적법화·피해보전직접지불금 단가 현실화 등 제도 개선 논의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7월 30일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원장이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 염소 경영 우수 농가를 찾아 사육·경영과 가공·판매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내 염소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염소 생산과 가공·판매 시 농가가 겪는 어려움을 직접 살피고, 연구·기술 지원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파악하고자 마련했다.

조용민 원장은 이날 염소 사육 우수 농가를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축사 인허가 절차(축사 적법화),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수입 염소고기 원산지 관리 강화 등 현장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조 원장이 찾은 농가는 염소 약 3,000마리가량을 기르고 있으며, 축사와 시설 현황을 살폈다. 이곳 농가는 번식 축사와 비육 축사를 분리해 운영하고 있으며, 개체별 사육 정보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직접 판매장과 온라인 유통망도 운영하고 있어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한 번에 연계되는 운영(경영) 체계도 갖췄다.

남원흑염소농장 전영기 대표는 “염소 농가가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축사 합법화 지원과 수입 염소 고기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다”라며, “염소 가격 하락으로 어려운 농가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단가 현실화도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원 조용민 원장은 “현장의 제안 중에서 연구와 기술 보급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문제는 관계 부처와 공유하면서 풀어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염소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힘껏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방문 계획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책임자	과 장	김순자 (055-960-3510)
		담당자	연구사	김관우 (055-960-3543)
				

■ 개 요

- 일 자: 2026. 7. 30.(목)
- 장 소: 전북 남원시 송동면 송내리 958-2 남원흑염소농장
- 내 용: 염소 선도 농가 축산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련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농가 현황
 - 염소 3,000두 사육, 사육경력 19년, (현)전북흑염소협회 회장
 - 농장직영 정육점, 건강원 운영 및 염소고기 유통

■ 방문 농가

시 간	분	내 용	비 고
15:00~15:40	40	◦ 흑염소 농가 현장 방문 - 애로 사항 및 건의 사항 청취	

■ 앞으로 계획

- 농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은 관련 부서와 공유
- 염소산업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추진